

투데이 칼럼

하버드대학교의 ‘리더란 무엇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과 최고 인기를 누린 대통령은 같은 시기의 인물입니다. 허버트 후버 31대 대통령(1974~1964)은 1929년 3월 취임했을 때만 해도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를 덮친 대공황에 무기력하게 대응했고, 1932년 후임 선거에서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1882~ 1945)에게 패배했습니다. 루스벨트는 미국인들에게 “극복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하며 최장수 대통령이 됐습니다.

모식 템킨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는 최근 국내 출간된 저서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원제 Warriors, Rebels, and Saints: The Art of Leadership from Machiavelli to Malcolm X, 어크로스 퍼낸스)>에서 용통성과 공감능력 유무(有無)를 두 지도자의 결정적인 차이로 꼽았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리더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 특이한 기회였다.”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이 닥쳤을 때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이 학 영
경제사회연구원 고문

를 인지하거나 인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칙을 내세우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자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굶주린 참전용사들의 시위에 무력 진압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를 이어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는 정반대였습니다.

취임 100일 만에 뉴딜을 비롯한 76건의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했고, 30회에 걸친 ‘라디오 노변정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부정책을 친근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이데올로기적 신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있었다.”

“저 모퉁이만 돌면 변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후버의 말을 차갑고 무심한 것으로 받아들이었던 미국인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건 두려움 그 자체 말

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루스벨트의 말에 감격의 눈물과 환호성을 보냈던 이유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그의 뉴딜정책은 허점투성이였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두 지도자의 성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위기 대응 방식과 공감 능력에 있었다.”

템킨 교수는 “좋은 리더는 대부분 똑똑하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모두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을 큰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베트남전쟁 당시의 두 지도자, 린든 존슨 36대 대통령(1908~1973)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1916~2009)이 좋은 예입니다.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쟁 확전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을 패전의 땃에 빠뜨렸고, 맥나마

라 장관은 그런 잘못된 결정을 부추긴 참모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존슨은 베트남전쟁이 기로에 섰을 당시 그중에서 물러나 손실을 줄이면 자신이 나약하고 남자답지 못한 사람으로 비칠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런 의중을 간파한 맥나마라는 대통령 입맛에 맞춰 전황이 순조롭다는 거짓 보고를 일삼았고, 그 말을 믿고 추가 징병과 파병을 단행한 결과는 처참했다.” 권력을 위한 권력’을 쫓았던 두 리더의 결정으로 미군 5만8000명, 베트남인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민심을 잃은 존슨은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맥나마라는 포드자동차를 장기간의 부진에서 구해내 사장 자리까지 올랐고, 지금까지 공공정책 및 사업의 기초로 활용되는 ‘시스템 분석’을 창안하며 ‘조속한 천재’로 불린 인물입니다. 그를 망친 것은 사적(私的)인 권력욕이었습니다. “집중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리고 리더는 유산을 남긴다. 리더의 이상과 소명(召命), 세계관은 한 사회, 때로는 한 시대의 향방을 좌우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베스트 컨트리 앨범’ 수상 소감 말하는 비온세



비온세가 2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크립토타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67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컨트리 앨범’ 상을 받은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비온세는 정규 8집 ‘키우보이 키터’로 이 상을 받아 처음으로 컨트리 부문 상을 받았다.

“우리 엄만 범죄자가 아냐”



2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멕시코 국기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설

‘효정의 향기’ 출판기념회 의미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건너온 국제가정 83명의 ‘효정’의 심정과 삶을 담은 간증책 ‘효정의 향기’가 2024년 지난해 출판돼 크게 관심을 모았다. 모두 83명의 간증을 책으로 출판하면서 그 의미가 더욱 크고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효정의 향기’ 출판기념회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에서 열렸다. ‘효정의 향기’ 출판기념회에는 가정연합 국제가정협의회 회장을 포함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제가정이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린 지는 벌써 30년 세월이 지났다. 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에서 중차대한 일꾼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가정의 삶은 대한민국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천 명이 넘는 회원들이 효부상과 효행상, 다산상, 봉사상, 문학상 등을 수상

했다. ‘효정의 향기’ 책에는 눈물 없는 볼 수 없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담겼다.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효를 실천하고 마을과 이웃에게 봉사와 헌신으로 위하는 삶을 실천했다. ‘효정의 향기’에 새겨진 귀한 이름 한 자 한 자는 하늘이 인정한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이며 위대한 승리다.

여기에 적힌 한 단어 한 문장 곳곳에 숨겨진 행간에는 ‘하늘 대한 효정’이 담겨 있다. ‘효정의 향기’는 천일국 시대에 참부모님과 동시대권에서 살아간 국제가정들의 ‘전승기록’이다. 미래 세대에 전하는 ‘간증’인 것이다.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건너온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이다. 이들의 삶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인구 문제 해결의 열쇠도 이들에게 있다.

방치된 탄소 공장

행정기관에서 조성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않으면서 애꿎은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 북도청 부근에는 탄소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조성한 탄소 공장이 있다.

탄소 발열 의자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지만 태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활용도도 떨어지지만 자치단체는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5억 원을 들여 조성한 탄소 공장이다.

이는 탄소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탄소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탄소 발열벤치, 탄소하우스, 오르내림관 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의자는 탄소의 열전도를 이용해 따뜻한 열이 올라온다.

하지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앉아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의자가 여섯 개나 설치돼있지만 작동이 되는 건 한 개뿐이다. 만져서 차이를

느껴보게 한다며 만들어놓은 오르내림관은 화강석, 나무, 철, 탄소 등으로 돼있어서 굳이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의 없다. 5억이나 들여서 쓸모없는 시설만 만들어 놓은 셈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탄소 공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식의 시설물 방치는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

탄소 공장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주시에는 사후 관리나 보수 등의 관리 계획도 없다. 전주시 관계자는 운영 계획 같은 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조형물에는 따로 관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탄소 산업을 홍보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시설은 고장 나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는 최소한의 관리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시설을 방치하고 있을 뿐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